

2017년 5월 27일, 구좌읍 상도리 상도리노인회관, 이현정 조사.

제보자1: 부창용(남, 1947년생, 구좌읍 상도리)

제보자2: 강기주(남, 1937년생, 구좌읍 상도리)

- 줄거리: 예로부터 상도리는 양반들이 많이 살았으므로 양촌이었다고 전한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도 상도리를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었다. 상도리에 가장 유명한 양반은 동선녁집이라고도 불리는 정씨 집안인데, 양쪽 모두 가마가 있을 정도로 권세가 대단한 집안이었다. 현재 가마 두 개 중 하나는 표선민속촌에 기증되고 다른 하나는 이 집을 허물면서 함께 없어진 것으로 추측 된다.

[제보자1] 우리 상도리 마을이이 옛날 양반촌이라서. 양반촌이니까

“딴 마을에서 말을 타고 지나갈 때도 가다가 상듯마을 딱 오면은 말에서 내려서, 마을을 지나간 다음에야 말을 타고 간다.”
라는 옛말도 있습니다게.

[조사자] 아. 깁니까. 그 정도로 양반덜이 많았다.

[제보자1] 양반덜이 많이 살아부니까.

[제보자1] [제보자2] (웃음)

[조사자] 그러니까 상도리는 거즘 제주도에서는 거의 이제 문과급제하고 문과 쪽으로 많이 사람이 난 사람덜이 많은 동네구나예.

[제보자1] 예. 양반촌이라고 헤가지고. 이 딴 지역에 내놔 보면

“거의 다 상도사람은 아 이뭐 공무원 많고 이제 에, 뭐 벼슬 많이 헌 사람덜이다. 다 양반이다.”

이렇게만 거의 다 알았거든. 옛날에는. 건디 요즘에 와서는 쪼꼼 저 그런 공무원이 엊어갖고 좀 뭐헌다. 그 전에는 이 상도하고 또 거 어디 저쪽 서촌 가민 그 어디 허곡 두 마을이.

“이 벼슬아치 공무원덜이 많이 있다.”

라고.

[조사자] 어디파? 명월이파?

[제보자2] 납읍.

[조사자] 애월 납읍.

[제보자2] 납읍이 경찰공무원이 많은 디.

[조사자] 납읍이 경찰공무원이 많을니까?

[제보자2] 어. 거기가 공무원 많다고 혀. 거. 동선녁집 얘기 좀 험서게.

[제보자1] 거 동선녁집은 상도리 그. 정칩 그 종손집인디.

[제보자2] 동쪽에도 정칩 사름이고 서쪽에도 정칩 사름인데.

[제보자1] 그 옛날 그 가마. 그 제 지내는 가마지. 뭣 딸리는 가마가 아니고.

[제보자2] 제단.

[제보자1] 거기다가 이제 거 밖에다가 이러쿵 지어서 이제, 거기만 해서, 지금 이제 표선, 표선에 이제 서녁칩이 것이 갖는가.

[제보자2] 표선 거기 성읍, 성읍.

[제보자1] 이제 거기 갖고 한 군데 건 그냥 잇는 걸로 아는데. 집을 뜯어부니까 것도 다 뜯어분 걸로 아는데. 양쪽이 다 가마가 잇엇어요.

[조사자] 가마가 잇을 정도믄 굉장히…….

[제보자2] 어이유. 어마어마 햇죠.

[제보자1] 상도에서는 그 알아주는 정칩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 민속촌으로 이제.

[제보자2] 이설해 가불고.

[제보자1] 하나는 집에 잇다가, 그 집을 뜯어비엿는데 아마 그것도 훈데 뜯어비엿겠지.

- 핵심어 : 상도리, 양반촌, 말, 하마(下馬), 문과급제, 공무원, 벼슬, 동선녁집, 정칩, 가마, 납읍리, 양촌